

질그릇 낳은 도구의 울림을 기억하며

심헌갤러리 기획 초대
도예가 오창윤 개인전
전통적 제작기법 기반
현대적 소성법 등 연구

그가 처음 제주
옹기 물레작업
을 접한 해는
1998년 늦은 봄
이다. 그의 나이
스물넷. 공예를
공부하고 있던 제주 청년이던 그는 그
때 비로소 제주옹기를 만났다. 도예원
에서 현무암으로 복원된 돌가마에 흙
을 바르고 불을 때고 나뭇가지 묶음인



'점피' 구하는 일을 도우며 설렘을 느
꼈다. '제주다움'에 대한 고민이 깊어
지면서 그 일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돌가마 도예연구소를 운영하며 옹
기제작에 전념해온 도예가 오창윤. 제
주대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수로 있는 그
가 심헌갤러리의 '제주의 색을 담다'
기획전에 초청돼 도예전을 갖는다.
그의 열일곱 번째 도예전이 되는 이
번 전시는 '도구의 울림... 제주 질그
릇'이란 이름을 달았다. '제주옹기의
속성실험과 용기개발에 관한 연구'
등 도예가를 넘어 학자로서 제주옹기
를 들여다본 글도 도록에 담았다.
전시에 붙여진 제목처럼 도구와 질
그릇이 나란히 나온다. 그는 제주옹기

전승 활동에 참여하거나 체계적인 교
육을 받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제작기
법을 따르면서도 과학적이고 현대적
인 소성기법을 부단히 연구하며 제주
질그릇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 필요한
도구를 그의 손에 맞게 직접 만들어
냈다. 시간이 더해지며 제주다움 색채
와 모습이 그려지듯 오 작가는 자신의
제작방식과 도구, 소성 방법이 비록
서툴지만 언젠가 '나 다움'으로 변화
해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심헌갤러리를 운영하는 허민자 도
예가는 그의 작업에 대해 "제주의 흙
과 기후, 제주 사람들의 삶이 그에게
말없는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은
힘든 제작과정과 실패의 과정을 거쳐
성공의 경험으로 축적되면서 제주 옹
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의 작



오창윤 도예전 '도구의 울림... 제주 질그릇' 출품작.

품은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우
리 일상에서 쉽게 쓰일 수 있고 옹기
의 과학적인 장점을 잘 이용해 제작하
면서도 미관으로는 장식성을 잃지 않
는다"고 했다.
전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
지 계속된다. 문의 064) 702-1003.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시(詩)로 읽는 4:3 (32)

엽서 한 장

김영란

붉은 소인 마포형무소 아버지 엽서 한 장 낭설처럼 생트집처럼 인생에 끼어들어 와르르 허물고 가는 천추의 저 낙인	다시 물으며 명 긴 게 별이라 시던 어머니 생 각합니다 인생은 낙장불입 못 바꾸는 패하나 빈속에 강소주 독거노인 방방에서 아버지 서러운 생애를 그리움으로 마십니다
--	--

마포형무소(麻浦刑務所)는 정부수
립 초까지 사용되었던 형무소이다.
1908년에 경성감옥이 서울서대문
구에 지어졌다. 8.15 광복이후 마
포형무소로, 1961에는 마포교도소
로 각각 개칭했다. 1995년에 마포
구 공덕동 105번지 마포형무소 자
리에 '1912년 일제(日帝)가 경성
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抗日) 독
립운동가(獨立運動家)들이 옥고
(獄苦)를 치렀던 유적지'라고 적
힌 표석이 설치되었다.
4.3사건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
로 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실시되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벌금형·구류·
집행유예 등을 언도 받았지만, 급
고·징역 등의 실형을 언도 받은 사
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형무소에 분산 수감되
었다.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목포·
광주형무소에, 군법회의 대상자들
은 서대문·마포·대전·대구·목포·
인천·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군법회의' 명령에 복형장소가 마
포형무소로 기재된 사람은 223명
으로 모두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여기에서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
어 마포형무소로 이송된 사람이
96명이므로, 마포형무소 재소자는
총 319명이다. 상당수가 한국전쟁
이 발발하자 총살당하였다. 6월 25
일 당일 오후 2시 25분 치안국장의
명령으로 각 경찰국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을
전화통신문으로 긴급 하달하였다.
제주에서 이송된 재소자는 일반재
판 수형인 200여 명과 두 차례 군
법회의 대상자 중에 만기 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
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
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제주로 돌
아오지 못하고 행방불명되었다. 서
대문·마포형무소와 인천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북한 인민군
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출소하
여 각지로 흩어졌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자료 결국 돌문화공원으로

박물관 민속전시실 존치 대신
2013년 정책결정에 따라 이관
박물관 증장기 방향 용역 추진

수년째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도민
속자연사박물관의 민속 자료가 결
국 제주돌문화공원으로 이관될 예
정이다. 박물관 상설 민속전시실을
종전대로 운영하는 대신 민속 자료
는 돌문화공원으로 이관한다는 방
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도민속자연

사박물관 민속 자료의 돌문화공원
이관을 골자로 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정책 결정을 반복하
는 데 따른 부담과 이후 돌문화공원
이 민속 자료를 담는 설문대할망전
시관 건립에 따른 국비를 받은 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0월 현재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보유한 민속 자료는 1만2000점에 이
른다. 이 중에서 2013년 정책 결정 당
시 소장 자료 수인 8060점이 이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계자는 "민

속전시실을 지금처럼 운영하기로 돌
문화공원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박물관의 민속 기능 존치 여
부는 미지수다. 최근 제주도 학술용
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전시콘텐츠 강화와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용역이 내년
에 시행되면 그에 따라 박물관의 앞
날이 달라질 수 있다.
돌문화공원 관계자는 "민속 자료
를 이관받은 뒤 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에서 유물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민
속전시실 운영을 지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박물관의 민속
기능이 유지될지, 말지는 결정된 것
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11월 11일 제주도청에서
민속 자료 이관 TF팀 회의가 열릴 예
정이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날 회의에서는 이관 기준,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
자는 "그동안 제주도 중재로 자료 이
관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개관 35주년 역사를 지닌 박물관의
민속전시실은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다가오는 TF팀 회의를
시작으로 좀 더 진전된 이야기가 나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쏘다

제주대 음악학부 정기공연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음악학부(학
부장 김효정 교수)는 11월 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주
대 개교 67주년 기념 제36회 정기연
주회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1984년 이래 꾸
준히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제주대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제의 오페레
타 '빈의 아침, 낮, 밤' 서곡과 라흐
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들려준
다. 음악학부 김민경(소프라노), 정
소영(플리리넷), 홍예지(첼로), 방
현지(피아노)씨가 협연한다.

문부공원 캐릭터퍼레이드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2019제주에니아일랜드 페스티벌이
11월 1~3일 아시아CGI에니메이션
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 마지막날에는 서귀
포기적의도서관 주변 문부공원에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캐릭터퍼레이
드가 펼쳐진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캐릭터 출연진들이 문부공
원을 돌며 행진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퍼레이드 형식에서 벗어나 장소성을
살렸다.

골든브라스앙상블 연주회

골든브라스앙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가 11월 3일 오후 5시 설문대 여성문
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날 연주회엔 영남대 겸임교수이
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인 박
승훈 트럼펫터가 협연에 나선다. 골
든브라스앙상블은 전문 금관 연주자
들로 구성된 단체다. 금관악기 특유
의 음색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연주
를 펼치기 위해 창립했고 도내외 공
연을 꾸준히 가져왔다. 제주도립 서
귀포관악단 강의훈 상임단원이 음악
감독을 맡고 있다.

고함 첫 개인전 '주저않다...'

고함 첫 개인전 '주저않다-침전(沈
澱)'이 대안공간 새당라움(제주시
중앙로 99, 3층)에서 열리고 있다.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에
서 제주출신 청년작가 고함은 일상
속 감정과 고민을 그림에 담아 선보
인다. 몸의 형태로 우울과 불안을 형
상화한 드로잉과 유화 10여점을 볼
수 있다. 프로젝트그룹 '마음'이 예
술 대학 등을 졸업하지 않은 신진작
가의 첫 발표를 위해 기획한 전시다.
고 작가는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다. 문의 010-3553-1303.

추사 유배지서 대정고를 추사문화제

제주 유배인 추사 김정희를 기리는
축제가 있다. 11월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유배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다.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추진위원
회(위원장 고석중)가 주최·주관하는
예술제 첫날엔 오전 8시30분부터 추
사 유배길 걷기, 길뜨기, 축하 공연
이 잇따른다. 둘째날에는 오전 9시
송모제를 시작으로 걸궁길뜨기, 유
배행렬 재현, 추사선생 송모 전국 휘
호대회(추사체, 한문, 한글, 문인
화), 보성초등학교 모듬북 공연, 강
평환 서예가의 추사체 퍼포먼스, 다
례 시연, 대정고을 5개리 노인회가
참여하는 민속놀이 재현, 모슬봉 소
리패의 해녀춤, 대정 아줌마 난타 공
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엔
기록사랑 마을 문서, 추사체 영인본,
서귀포추사체연구회 회원 작품 등을
전시하고 전통옹기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다채롭다. 전선희기자

태양광 주택 | 태양광 발전소 | 전기공사업
벤처 인증 기업 | 인공지능 태양광 제어기술 보유

제주 토종 글로벌
나눔에너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 토종기업 나눔에너지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제주도청

한화 Q-CELL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한화 큐셀(Q-CELL) 제주도 쿠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주)나눔 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064-745-0420 FAX.070-8812-0420